2024년 12월 1주(12/2-12/6) 가족공동체 나눔 교안

사도행전 7:54-8:1 스데반의 죽음, 예수님을 변호하다

1.말씀요약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밖에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열 한 명의 사도들도 아닙니다. 타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구제와 행정을 맡은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합나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다름 아닌 성령충만함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동일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우리나 다 차별없이 동일하게 예수를 위한 증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스데반에게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처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날아오는 돌 하나도 막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맞아 죽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행한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 다 비 맞는데, 나만 비 안 맞는 그런 능력이나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돈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복을 주시는 것은 예수 구원, 예수 복음을 위해 증인으로 살라고 주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주시는 능력과 복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순교**입니다. 꼭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교란 **예수께서 온 세상에 주가 되시는 일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죽음 사람 살리는게 아닙니다. 말기암 환자를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 주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원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교 당한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순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도 스데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스데반은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하며 스스로 순교의 길을 갑니다. 이에 스데반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투석형을 받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 받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스럽게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마음도 몸도 너무 고통스러운 사형법입니다. 그러나 본문 55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를 갈며 정죄하며 비난하는 자리, 사형 선교 받는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장면'**을 봅니다. 땅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그 순간, 하늘에서도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악인들은 스데반을 정죄하지만,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악인들과 마귀를 정죄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데반은 바로 하늘과 땅, 두 군데서 동시에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아마 한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스데반은 자신을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본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면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는 마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가, 누구를 변호하며 살아 왔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죄인들은 평생,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 변호만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평생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죄를 뒤짚어 쓰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소망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 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하늘 법정에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듯, 이제 우리도 허락하신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변호해야 합니다. 그길이 설사 내 것을 잃는 길이라도, 신자들은, 알곡들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을 본받아 일평생 예수님 변호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적용

내가 바라는 능력은 기적입니까 순교입니까? 나는 지금 나만을 위해 자기 변호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 변호하며 살아갑니까?

3.함께 기도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삶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게 하여주옵소서. 일평생 예수님만 변호하고 소개하는 삶 되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4년 12월 1주(12/2-12/6) 가족공동체 나눔 교안
사도행전 7:54-8:1 스데반의 죽음, 예수님을 변호하다

341 십자가를 내가 지고 (통일 367)

Jesus, I my cross have taken

H. F. Lyte, 1824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막 10:28)

시련과 극복

ELLESDIE: 8.7.8.7.D.
Attr. to W. A. Mozart(1756-1791)
Arr. by H. P. Main(1839-1925)

보통으로

1. 십 자가를 내 가지 고 주 를따라 갑 니다
2. 주 도곤욕 당 했으 니 나 도곤욕 당 하리
3. 내 가핍박 당 할때 에 주 의품에 안 기고

이 제부 터 예 수로 만 나 의보 배 삼 겠 네
세 상사 람 간 사하 나 예 수진 실 합 니 다
세 상고 초 당 할수 록 많 은위 로 받 겠 네

세 상에 서 부 귀영 화 모 두잃 어 버 려도
예 수나 를 사 랑하 사 빛 난얼 굴 보 이면
주 가주 신 기 쁨외 에 기 뻐할 것 무 어냐

주 의평 안 내 가받 고 영 생복 을 받 겠 네
원 수들이 미 워해 도 염 려할 것 없 겠 네
주 가나 를 사 랑하 니 기 뻐할 것 뿐일세 아 멘

쉬운 기타코드(capo=1st) A♭→G, E♭→D D♭→C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원제: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 스데반

내마음에주를향한 사랑이 — 나의맘엔주가주신 진리로 —
내입술에찬—양의 향기가 — 두손에는주를닮은 성김이 —

나의눈에 주의눈물 채 워 주 소 서 서
나의삶에 주의흔적 남 게 하 소 서 서

하나 님의 사랑이 — 영원 히함 께하리 —

십자 가의길을걷는자에 게 순교 자의삶을사는이에 게

조롱 하는 소리와 — 세상 유혹 속에도 —

주의 순결한신부가되리 라 내생 명 주님 께 드리 리

Copyright (C) 2001 All Nations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